

2017년 5월 26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노인회관, 이현정 조사.
임병순(남, 1946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- 줄거리: 독대가리와 뜰데기라는 인물이 살았다. 뜰떼기는 독대가리보다 다섯 살이 어렸는데, 나이를 핑계로 항상 독대가리가 뜰데기에게 힘든 일을 다 시키곤 하였다. 화가 난 뜰데기가 독대가리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뜻을 싸 밀짚모자에 넣고는 자신이 참새를 잡았으니 자신이 모자를 들면 참새를 잡아달라고 독대가리에게 부탁한다.
- 뜻을 참새인줄만 알고 잡은 독대가리가 정신이 없는 동안 뜰떼기는 도망쳐버렸고 결국 그날의 일은 모두 독대가리가 해야했다는 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저 옛날엔이. 쉐 맥이덜을 많이 다녔주. 소. 이제 방목을 했다 이 말이야게. 이제, 소를 이제. 독대가리 벨멩이 독대가리라 거 어른 이름이. 독대가리하고 뜰땡이허고 둘이가 쉐 맥이레 갓단 말이주. 쉐 맥이레 가니까. 뜰떼기는 나이가 어리고 혼 다섯 살. 독대가리는 나이가 한 다섯 살 많에.

소를 일러먹어도 자꾸 이 뜰뎅이헌테만 그 소를 촛양 오렌 허고 혼 군딜로 모둘 때도 마찬가지고, 또 아침에 소를 물양 갈 때도 이제 뜰데기가 전부 다 뒤처릴 다허는 거라. 자꾸 허담 보니까 성질나거든.

“으, 어른 골탕을 혼 번 맥여야겠다.”

뜻을 싼에이 페렝이. 그땐 여름에 페렝이엔 딱 써그네 그 쉐 맥이레 갓주게. 그 보리 그저, 뭐냐 그저 이 월로 만든 보릿궤 닮은 걸로 만든 거저. 밥 싸그네 다녔단 말이주. 쉬지 않게.

[조사자] 차롱같이예?

[제보자] 대바구니……. 어, 차롭게. 겐 인젠 점심시간은 다 웨고 밥을 먹어야 텔 건디.

“화장실 갓당 오肯.”

헨 어디 오줌 누레 가는 사이에. 뜻을 싼에 페렝일 딱 덮언 놔뒀단 말이라. 덮었는디 이젠 거. 독대가리엔 헌 어른이 온 거라. 오니까.

“아이고, 이거 저 생일 잡았이나네 요걸 이제 딱 나가 들르걸랑그네 손 담았다가

네 걸 생일 잡으렌.” 허란

“폭 잡으렌.”

건 한쪽으로 영 들른 거라. 들르니까.

그, 둑대가리엔 헌 어른은 팍 손을 잡았단 말이야. 게난 똥을 잡은 거 아니라. 겨 난 이제 그 뜰데기는 거 막 도망가분 거라. 거난 밥도 못 먹엉 손에 똥냄샌 나지. 게도 이젠 내비된 이젠 내령 와분 거라. 그 뜰데긴. 이젠 그 새를 이젠 그 둑대가리 어른이 다 몰안 왓단 말이주기. 경 헨 인제 집집마다 인젠 다 보내는디. 삼일동안 뜰데기가 굽안에 나오질 못해낫어.

[조사자] 무서완? 둑대가리 무서왕.

[제보자] 응. 둑대가리 무서완.

[조사자] 하도 저 뭐냐. 시겨부난 화가 낭 복수는 헷인디 겁낭그네.

[제보자] 어, 겁난. 삼일동안 집에 안 들어완에 물고랑에서 경 헨 좀잤어. 옛날 그, 저, 보 리?뜬 거이. 저, 골아그네 먹는 큰 방앗간 닮은 게 그, 돌 큰돌 메여그네 돌리는 게 잇어. 게서 경 헤낫어.

- 핵심어 : 둑대가리, 뜰땡이, 뜰데기, 골탕, 페렝이, 똥, 도망, 밀짚모자